

銀海寺百興庵

徐 正 男
正宇建築事務所

I. 寺觀의 形勝

1. 寺觀의 占定

百興庵은 慶尚北道 永川郡 清通面 治日洞 八公山(海拔 1,192M) 동쪽 기슭에 위치하여 지리적 좌표는 동경 128° 46', 북위 35° 59'에 있다.

百興庵으로 가자면 大邱와 慶尚北道 永川市에서 출발하는 길이 쉽다. 大邱에서는 동쪽으로 하양읍을 경유하여 慶山郡 와촌을 통하여 잔다.

永川郡의 교통은 中央線과 大邱線 철도가 동서로 뻗혀있고 도로는 大邱-慶州線 국도, 原州-浦項線과 청송선 등이 각각 永川市를 중심으로 四通五達하여 교통의 요충을 이루고 있으며 京釜高速道路가 大昌, 琴湖, 北安의 三個邑面을 관통하고 있다.

百興庵은 永川市에서 서쪽으로 화산면 삼부동을 경유하여 16km 떨어진 銀海寺에서 西向 溪谷을 따라 약 2.5km 지점인 胎室峰(海拔 466m)의 남쪽 기슭에 위치한다.

百興庵이 위치한 現 永川地方은 신석

기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임고면 양항동의 고인돌을 비롯하여 도촌동의貝塚, 자양댐 수몰지구의 古墳, 대의동古墳 조곡동의 支石墓와 北安面 신리동 뒷산 청석바위에 응결된 조개껍질등의 유적을 감안할 때 수 천년 전부터 永川地方에는 조상들이 생활하여 문화를 형성한 것으로 믿어진다.

원래 永川地方은 骨伐國이라는 部族國家가 있었다. 그러나 徐羅伐이 강세하여 견딜수가 없었다. 더욱이 助賁尼師今 2年(서기 230年)에는 骨伐國을 경유하여 甘交國(현 김천)을 토벌하여 존립하다가 西紀 236年 阿音夫王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 助賁王에게 항복하여 現 永川땅은 切也火郡이 되고 신령땅은 吏丁火郡이 되었다. 35대 慶德王때 臨川縣, 道洞縣, 梨盲縣, 龜百縣 등 四縣을 합하여 監臯郡이라 개칭하고 徐羅伐文化圈에 흡수되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보물 제517호로 지정된 菩堤碑(798년 세움)가 지적하고 있다.

특히 비문에 전래된 지명을 간추려 보면 성비yal 평야와 장막도량 등이 있다. 이 의미는 수도권을 방위하는 성축이 있

었다고 推測되며 군사 요새지로 주목할 수 있다. 그 당시 군사 요새지로서 發展하였음은 물론 각곳에 사찰을 축조하여 천연한 佛教文化의 꽃을 피우기도 했다. 그중에도 銀海寺를 중심으로 약 3km 半徑내에 百興庵을 비롯하여 10여개의 암자가 創建되었다.

百興庵은 新羅 景文王 9年(869년)專哲國師의 發願으로 창건되었다. 창건 당시 山의 林相을 따라 周圍에 잣나무가 많아 相旨寺라고 命名되었다가 그뒤 李朝 明宗 1年(1546)에 天教大師가 銀海寺에서 八公山에 이르는 山勢가 마치 龍이 등천하는 기세와 같음에 注目하고 雲浮庵에서 일어나는 瑞雲이 더욱 많이 일어나서 그 昇天之勢를 도우고자 百興庵이라 命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라 太宗武烈王때는 가장 신선한 땅(青松山,

知山, 皮田, 金剛山) 중의 하나인 고경면 청경동의 금강산에 골화관을 신축하여 손님을 접대했다는 것이 三國遺事에서 밝히고 있다.

고려초기 道洞縣, 臨川縣을 합하여 永川郡이라고 불렸으며 成宗때에는 刺史를 두었고 顯宗때는 신령현이 경주로 편입되었고 明宗때는 監務를 두어 다스리게 하였으며 그후 知州事로 승급되었다. 恭愍王때에는 신령현이 복현되었고 李朝太宗 14년에 영주군을 영천군으로 개칭하였고 知郡事를 두었으며 世祖 12년에 郡守를 두었다.

燕山君 3年(1497年)에는 신령현이 폐현되고 永川郡에 귀속되었다가 1914年府郡폐합시 永川郡에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寺觀의 形勝

百興庵이 있는 八公山은 한반도의 최초를 이루고 있는 태백산맥이 남으로 흘러 내려와서 포항근처에 이르러 내륙으로 깊숙히 끌어 들어오다가 大邱市를 눈앞에 보면서 해발 1,192m의 最高峰인 八公山 麻盧峰을 중심으로 양쪽에 東峰(1,155m)과 西峰(1,041m)을 거느리고 東西로 힘이 맺혀 꿈틀대는 산줄기를 뻗고 있다. 東南쪽엔 念佛峰, 壽峰, 印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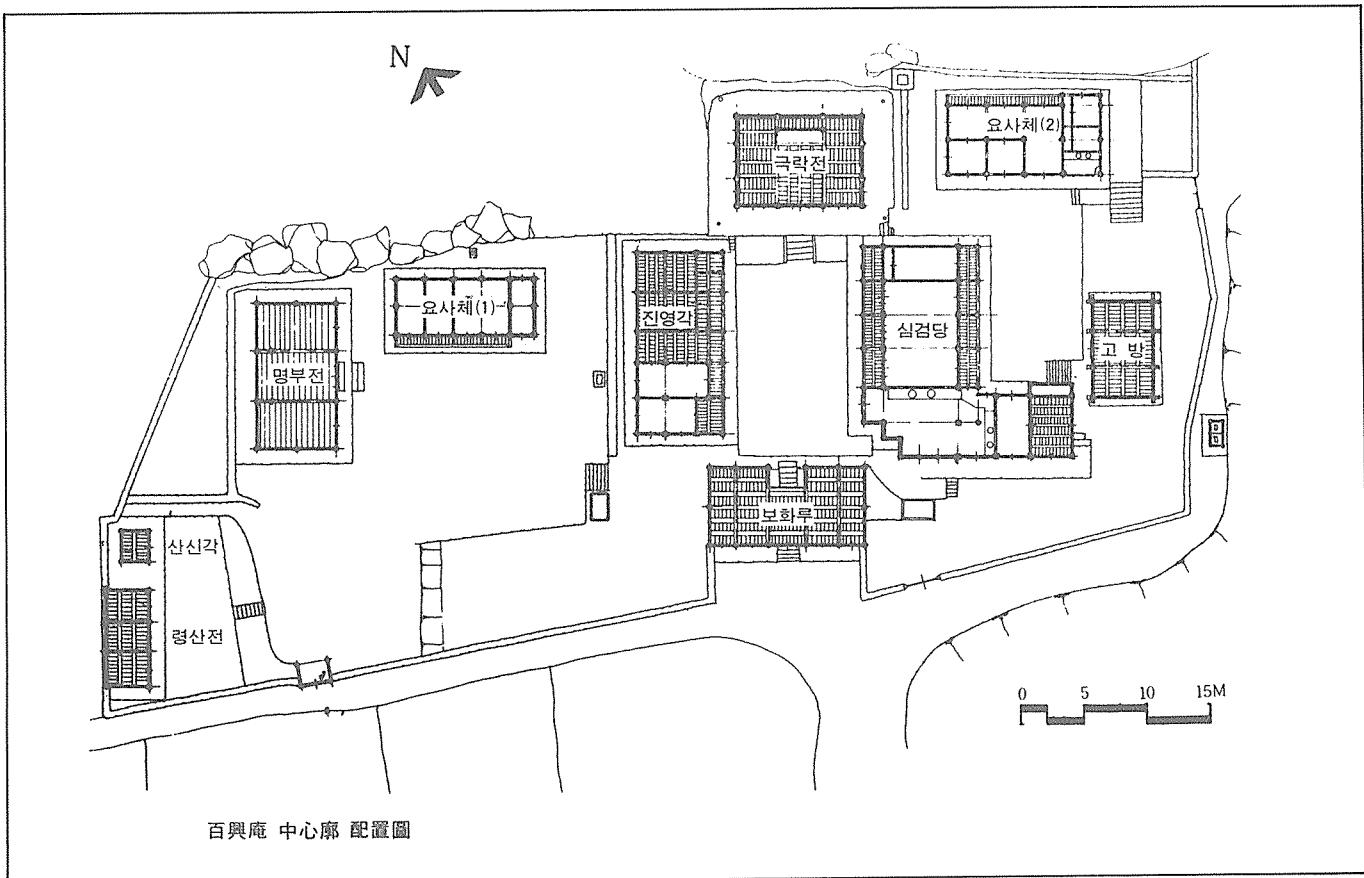
露積峰, 冠峰 등이 이어져있고 서쪽으로는 텁날바위 把溪峰을 넘어 架山에 이른다. 慶尚北道가 정한 八公山 道立공원지역은 南쪽 약 22km 지점에 大邱 西쪽의 漆谷郡 架山面과 東明面 東쪽에 永川郡 清通面, 新寧面이 연결되고 다시 慶山郡의 와촌면과 영남이 大邱市와 경계를 이루고 北쪽의 軍威郡 缶溪面과 山城面 그리고 善山郡 長川面 등 1개시 5개군에 걸쳐 124km에 달하고 있다. 팔공산에는 大韓佛教曹溪宗 제 9 교구본사인 古刹 桐華寺를 비롯하여 銀海寺, 把溪寺, 符仁寺, 松林寺, 冠岩寺와 毘盧, 浮屠, 養真, 念佛 등의 암자와 큰 절 銀海寺를 중심으로 半徑 약 3km 내에 百興庵, 雲浮庵 (711년, 성덕왕 10년), 寄寄庵(816년, 현덕 8년 創建 당시 안홍사), 中岩庵 (834년, 홍덕왕 9년), 妙峰庵(834년, 홍덕왕 9년)과 禪本庵 등이 있으며 雲浮庵에서 산길로 6km 지점에 왕명에 의해 創建한 居祖庵 (750년, 景德王 9년) 등 수많은 사찰이 팔공산 일대에 있어 永川文化의 보고이자 佛教수련 도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국보와 보물, 사적지로 지정된 문화재가 많다. 국보 2점, 보물 9점, 사적 2점, 30개소의 명승지가 산재해 있다. 국보 109호인 軍威三尊石窟, 14호인 居祖庵 靈山殿이 있고 보물인 桐華寺 입구 磨崖佛坐像, 桐華寺 幢竿支柱, 금당암 3층석탑, 毘盧庵石造毘盧舍那佛坐像과 3층석탑, 冠峰 石造如來坐像, 百興庵 極樂殿 및 須彌壇, 雲浮庵 青銅菩薩坐像과 史蹟 216호인 架山山城 등이 있다. 八公山의 옛이름은 父岳, 公山, 桐叢山등 여러가지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公山은 八公山이라 일컫는데 解顏縣(大邱府의 북쪽)에서 북쪽으로 17里 신라때 父岳이라 일컫고 中岳(나라에서는 지방에 中東西南北의 岳을 뒀다)에 비겨서 中祀(中岳에 제사지냄)라고 하였다』고 기록돼 있다. 또 달성군지에는 『팔공산의 옛이름은 桐叢山이요 新羅末에 甄萱이 慶州를 침공했을때 高麗太祖가 정병 5천으로 구하려 갔는데 견훤을 桐叢山 아래에서 만나 싸워 이기지 못했다… 지금의 염불암 뒤에 一人石이라 불리는 바위가

있는데 이것은 太祖가 적을 피하여 앉았던 곳이다. 이때 申崇謙, 金樂 등 여덟장수가 태조를 살리기 위해 전사했으므로 팔공산이라 한다』고 적혀 있다.

팔공산 일대의 동식물 분포는 동물이 86科 219種, 식물이 132科 680種(79년 경북도 팔공산 도립공원 후보지 조사서)으로 알려져 있다.

팔공산의 지질은 중생대 후기에 형성된 화강암으로 주변지형을 살펴보면 접촉변성암 쪽은 산이 높고 가파르나 화강암 쪽은 산이 낮고 경사가 완만한 편이다. 남서쪽으로는 수숫골, 바위골, 도학골, 폭포골 등 아름다운 골짜기로 흐르는 물은 内岩川에서 합류 琴湖江에 유입되고 百興庵 일대에는 금포정이라 불리우는 솔숲과 만년송, 三印岩, 약수터(將軍水), 전들바위, 뱃바위, 갓바위, 안홍폭포 등이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하다. 이곳에서 三國統一의 대업을 이룩한 김유신 장군이 어린시절 다른 화랑과 함께 지혜를 닦고 힘을 길렀다고 하며 周王山과 함께 경북에서 가장 수려한 산으로



손꼽히고 있는 팔공산의 八景을 엣시인 들은 無心峰의 흰구름, 祭天壇 소나비, 積石城 밝은 달, 百里嶺 쌓인 눈, 錦屏牆 단풍잎, 浮屠峯포, 藥師峰 새벽별, 동화사의 종소리 등으로 읊었다.

3. 寺觀의 現狀

百興庵은 銀海寺에서 약 2.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銀海寺에서 남쪽에 위치한 溪谷과 병행하여 산길을 따라 北西쪽으로 올라가면 1km 되는 지점에 新日池에 도착하게 된다.

다시 북쪽 胎室峰(해발 466m) 남쪽 기슭을 따라 서쪽으로 약 1.5km 지점에 도착하면 胎室峰 서쪽 봉우리(해발 488m), 南向 기슭(해발 360m)에 位置한 百興庵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溪谷을 건너 올라서면 북쪽에 百樂蘭若라는 頸子를 떠받들고 있는 寶華樓가 있으며 寶華樓와 極樂殿을 主軸線으로 볼 때 主軸線이 西쪽으로 약 37° 기울어져 자리하고 있고 마당면적은 약 3,000m² 내에

百興庵의 중심곽을 형성하고 있다.

南西間을 正面으로 한 2층 다락집인 寶華樓(前面五間 側面二間 樓閣 맞배 二十三坪)가 위치하고 그 북방에 正殿인 極樂殿(前面三間 側面三間 多포팔작 겹쳐 마二十一坪)을 子座午向에 앉쳐 이를 寺刹의 南北中心軸으로 설정 동편에 禪房인 二字形 平面의 尋劍堂(前面五間側面三間 맞배五十六.三坪)과 서편 동향으로 眞影閣(前面五間 側面三間 맞배二七坪)을 布置하여 四面이 건물로 둘러싸인 内庭을 둔 中庭式伽藍配置로 寺刹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다. 眞影閣 背面에 높이 1.5尺程度 亂積한 築臺를 造成하고 南向으로 寮舍體를 앉히고 그 西便에 東向으로 冥府殿(前面三間 側面二間 맞배二〇八坪)이, 그 背面 左側에 東向으로 灵山殿과 山神閣을 높이 3尺程度 築臺 위에 세우고 있다.

極樂殿 동편에는 南向으로 新築한 요사체가 있으며 그 전면에 현재 고방과 수납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서향의 2層樓閣이 있어 全體 寺域을 형성하고 있다.

寺內出入은 寶華樓 下層계단을 평상시 는 사용치 않고 東便에 있는 大門을 통하여 樓와 尋劍堂 사이의 傾斜진 통로를 이용하여 正殿에 접근하고 있다.

内庭은 平坦한 大地로 형성되고 寶華樓床의 높이는 内庭바닥 보다 15cm 높은 기단과 水平을 이루고 있으며 東側 尋劍堂 기단의 높이도 15cm 内外로 되어 있다.

極樂殿 背面은 처마끝 노출배수로와 자연석 축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 상단 금경사지는 竹林群으로 寺域을 에워싸고 있다. 寺域 주변환경은 北은 胎室峰으로 급경사지를 형성하고 西쪽은 八公山에 이르는 쪽으로 높고 동쪽은 낮은 緩傾斜地로 되어 있으며 남쪽은 溪谷으로서 낮고 멀리 中岩庵, 寄寄庵이 位置한 산봉우리 넘어 鳴馬山(해발 499m)이 직선거리 약 3.5km에 위치하고 있다.

II. 建物의 實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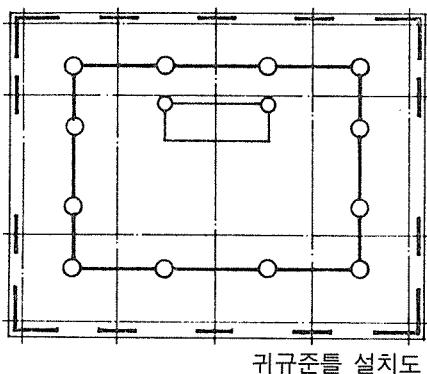
1. 實測方法

1) 規準틀의 設置

가) 귀규준틀 및 水平規準틀

建物의 平面實測用 基準線을 固定設置하기 위하여 角木과 板材를 利用하여 規準틀을 설치하였다.

귀규준틀은 기단모서리에 L자로 4곳에 세우고 水平規準틀은 柱間 中央部에一字로 4面 10개소에 堅固하게 기단면 보다 30cm 높여 균일하게 세우고 規準틀 각변의 길이는 1.5m 기단끝에서 20cm가량 안쪽에 설치하였다.



귀규준틀 설치도

나) 수직規準틀 設置

전물의 内外部의 높이를 測定하고 細部水平線을 設置하는데 利用하기 위하여 前面 左右間 기단에서 앞쪽으로 2m 정도 거리에 規準틀의 침하와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石板을 깔고 5寸角材, 8尺길이, 六本을 使用, 連結部位는 T字 Angle로 박아 곧게 연결 하였으며 수직과 뒤틀림을 防止하기 위하여 드잡이 베티목을 세우는 方法으로 규준대를 세우고 3方向으로 鐵線을 묶어 地盤에 固定시키고 30m 鐵卷尺을 規準틀에 고정시켰다.

다) 假設飛階 設置

여기에서 假設이라 함은 實測을 主로 한 假設을 意味한다. 建物의 精密實測을 위하여 極樂殿外部 四面에 쌍줄비계를 設置하고 實測하기에 편리하고 安全을 기하기 위하여 合板 2매폭으로 발판을 設置하였다. 그리고 内部實測을 위하여 水平飛階를 二단으로 설치하였고 佛壇(보물 486호: 須彌壇)과 上부 운각실측을 위하여 佛像을 眞影閣에 移安한 후

佛壇의 輪 손을 防止하기 위하여 佛壇 上面을 合板으로 막았다.

라) 基準點 設定

平面, 立面 및 斷面實測에 편리하고 변동이 없는 곳을 선택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實測에서는 極樂殿 前面 右側의 文化財標石上端을 택하여 수직 및 수평의 기준점으로 설정하였다.

2) 細部實測 進行方法

가) 實測기구

實測值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鐵製 尺을 使用하고 實測誤差를 最大限 없애기 위하여同一部位를 2~3回 정도 實測하여 그 平均값을 實測值로 채택하였다.

水平과 높이를 測定하기 위하여 투명 비닐제품인 9mm 호스를 30m 정도 준비하였고 수직측정을 위한 추와 압핀, 목실끈 등의 기본도구와 實測을 위한 제도용품을 준비하였다.

나) 立面 및 斷面 實測

수평기준선으로 3m, 6m 높이를 設定하여 外部四面에 수평실을 친 후 50cm 간격으로 수직기준선을 내린 다음, 모눈종이에 1/20 scale로 實測作圖 하였다. (内部立面實測도 同一 方法을 적용)

다) 平面 實測

규준틀에 쳐져있는 규준선을 수직으로 床에 내려 X, Y軸을 50cm간격으로 바닥에 목실을 方眼形으로 친 후 모눈종이에 立面과 同一 scale로 實測作圖 하였다.

※ 實測內容

①, ②, 평고대, 연목, 연합의 위치와 양곡 등 實測

③번선: 외부첨차의 위치 및 기울기, 桁包部分 細部實測, 창호, 引枋部材

④번선: 内壁, 桁包部材, 기울기

⑤번선: 天井部分

라) 지붕 實測

平面基準線을 용마루와 내림, 귀마루에 옮겨 位置를 확인하고 水平線은 수직 규준틀에서 물반으로 옮겨온 후 基準線을 친 후 각 부분을 � 實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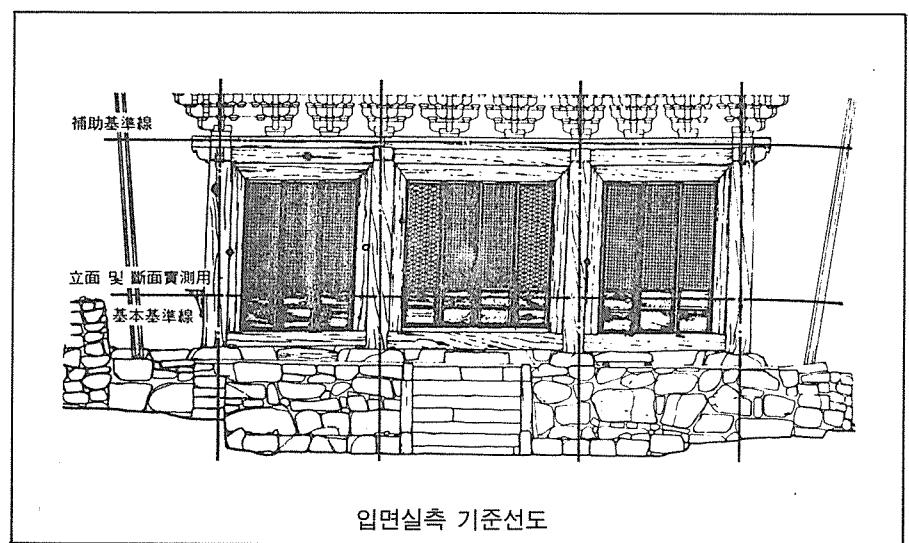
2. 極樂殿 實測調査

1) 平面의 實測

가) 平面 概要

正面三間, 側面三間의 長方形 平面形으로 内部는 佛壇 後면 모서리 양쪽에 2개의 間柱를 側面間의 기둥과 同一線上에 布置시키지 않고 약간 뒤로 물려 세웠으며 벽이 없는 全通間으로 内部空間을 構成하고 있다.

前面의 御間은 四分閣의 문짝을 달고 左右灰間은 같은 무늬의 三分閣門을 달았다.



원래側面壁도 모두開放되고 門扉를 달았던 듯한 문얼굴이 있고 左側壁은 御間에 두 짹 前後退에 각 한짝씩의 문짝이 달려 있다. 그러나 右側壁은 前退에 한짝문이 있고 御間, 後退間은 판재벽으로 되어 있으나 원형은 아닌듯 하다. 背面은 御間이 막이고 左右夾間이 열렸다. 보통은 御間이 열리고 夾間이 닫히는데 이 점이 특이하다.

내부바닥은 우물마루를 깔고 御間의 中央에서 후방으로 물려서 寶物 486호로指定된 佛壇인 須彌壇이 配置되어 있고 後佛壁은 板壁으로 양쪽 間柱사이에 세우고 그 위에 탱화를 걸어놓아 内部空間을 구획하였다.

나) 平面 柱間

建物의 平面柱間은 前面 御間이 3.75m(現曲尺 : 12.37尺), 背面 御間 3.74m(現曲尺 : 12.34尺)으로 兩夾間 3.14m(現曲尺 : 10.36)보다 2尺정도 더 넓고 東西側面의 中央間 2.82m(現曲尺 : 9.30),

兩退間 2.05m(現曲尺 : 6.76)로 御間이 2.5尺정도 더 크게 칸살을 잡았다. 平面平均比는 다음과 같다.

$$\text{正面長} : \text{側面長} = 1^{45} : 1$$

※ 現曲尺으로 환산하면 :

$$\text{a) 正面御間} : (13.76 + 3.74) \div 2 \div 0.303 = 12.37\text{尺}$$

$$\text{兩 夾 間} : \text{左} \rightarrow (3.15 + 3.12) \div 2 \div 0.303 = 10.34\text{尺}$$

$$\text{右} \rightarrow (3.14 + 3.20) \div 2 \div 0.303 = 10.46\text{尺}$$

$$\therefore \text{正面長} : (3.75 + 3.13 + 3.17) \div 0.303 = 33.16\text{尺}$$

$$\text{b) 背面御間} : (3.756 + 3.735) \div 2 \div 0.303 = 12.34\text{尺}$$

$$\text{兩 夾 間} : \text{左} \rightarrow (3.13 + 3.215) \div 2 \div 0.303 = 10.46\text{尺}$$

$$\text{右} \rightarrow (3.135 + 3.10) \div 2 \div 0.303 = 10.26\text{尺}$$

$$\therefore \text{背面長} : (3.74 + 3.17 + 3.11) \div 0.303 = 33.06\text{尺}$$

$$\text{c) 東側面 中央間} : (2.82 + 2.85) \div 2 \div 0.303 = 9.35\text{尺}$$

$$0.303 = 9.35\text{尺}$$

$$\text{左夾間} : (2.03 + 2.05) \div 2 \div 0.303 = 6.73\text{尺}$$

$$\text{右 } " : (2.02 + 2.11) \div 2 \div 0.303 = 6.79\text{尺}$$

$$\therefore \text{東側面長} : (2.835 + 2.04 + 2.06) \div 0.303 = 22.87\text{尺}$$

$$\text{d) 西側面 中央間} : (2.805 + 2.825) \div 2 \div 0.303 = 9.27\text{尺}$$

$$\text{左夾間} : (2.040 + 2.050) \div 2 \div 0.303 = 6.73\text{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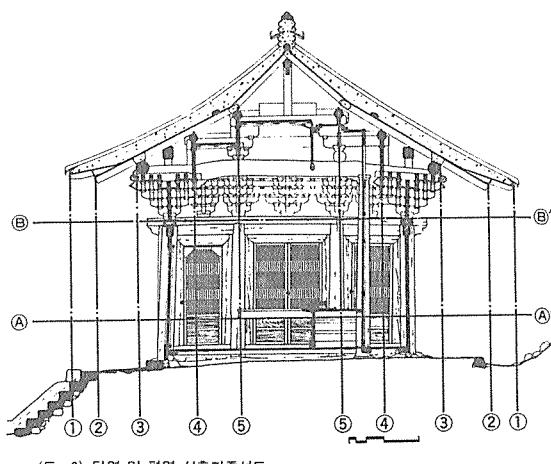
$$\text{右夾間} : (2.045 + 2.065) \div 2 \div 0.303 = 6.78\text{尺}$$

$$\therefore \text{西側面長} : (2.81 + 2.04 + 2.055) \div 0.303 = 22.78\text{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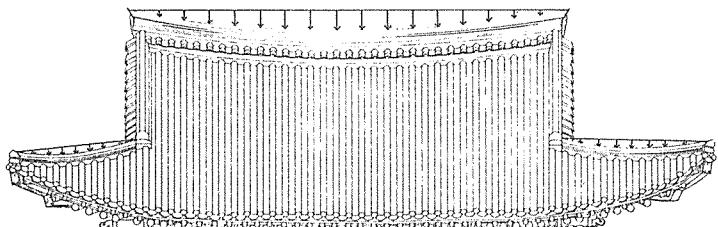
다) 基 壇

基壇은 内庭바닥보다 四尺高의 亂積한 石築의 壇인데 최근에 補修되었으나 原形을 크게 잊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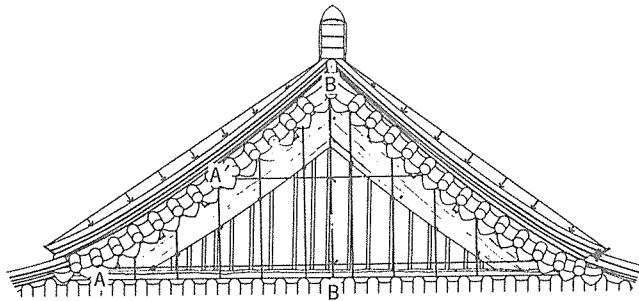
前面基壇바닥은 自然石 박석깔기를 하였고 나머지 3面은 흙바닥으로 기단의



단면 및 평면 실측기준선도



용마루, 귀마루곡 실측기준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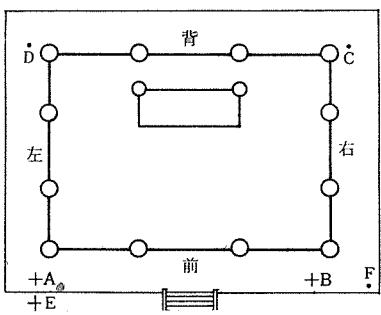


합각부분, 내림마루 실측기준선

幅과 Level值는 〈표-4〉과 같다.

〈표-4〉 기단福 및 高 (단위 : m)

	기단넓이		기 단 고	
	Left	Right	Left	Right
前	2.39	2.77	1.68	1.11
右	2.37	2.58	•	•
左	2.24	2.27	•	•
背	1.97	2.27	0.87	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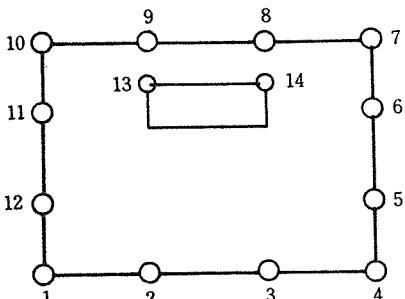


石材質은 自然石을 使用해 보이는 면만 다듬질하여 설치하였고 石材의 규격은一定하지 않고 四面의 높이도 모두相異하며 幅은 4面이 8尺정도로 비슷하였다. 中央에 石階一區가 있다. 三角狀의一枚石造 소맷돌이 있고 古來의 踏石이 가지런히 設置되어 있으며 門左側으로 石階가 하나 더 있는데 眞影閣(仁宗御眞) 처마밑으로 해서 極樂殿에 올라설 수 있도록 만들어진 四級의 작은 규모이다.

라) 碇 石

礎石은 自然石 덤벙주초로 柱礎上面은 비교적 평활한 편이나 기둥뿌리는 그림이질하여 柱礎에 앉혔다.

隅柱의 초석이 큰편이며 基壇 全体가 東側으로 경사진 관계로 西側柱礎는 거의 기단면과 높이가同一하나 東側의 磎



石高는 상당히 높으며 背面보다 正面의礎石高가 더 높다. 〈표-6〉 참조

最高높이와 最小높이의 차이는 33cm정도이다.

치되어 있고 청판의 幅도 御間 ($0.19 \sim 0.46$ cm)과 灰間 ($0.19 \sim 0.66$ cm) 20cm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마루는 東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2) 立面의 實測

가) 기 등

柱形은 모두 圓柱로 隅柱가 平柱보다 굵은 편이며 内陣柱는 他기둥에 비해서 비교적 가는 편이다. 민흘림기둥으로 柱斷面이 대개 上부로 올라가면서 줄어든 直長材이며 귀기둥은 後方으로 쓸림을 보인다.

〈표-8〉에서 살펴보면 正面柱徑이 가장 크며 柱高는 대체로 背面과 左側이 적으며 초석의 고저를 제외한 기둥길이는最大值와 最小值의 差異는 40cm (1.3尺)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四隅柱 가운데서 南東쪽 隅柱가 가장 높고 北東쪽 隅柱가 가장 낮았다.

기둥의 후림율(〈최대경-최소경/柱高〉 $\times 100$)을 보면 下部徑을 기준으로 할 때 平柱보다 隅柱의 후림율이 약 2배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背面柱의 후림율이 正面柱보다 큰것을 알 수 있다.

極樂殿의 기둥은 모두 민흘림기둥으로 시각상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上薄下厚感이 보인다.

※ 후림율 比較分析

1) 四隅柱 : 0.841%, 0.782%, 1.215%,

1.093%

前面의 후림율이 背面보다 약 0.34% 정도 작으나 시각 상 느낄 정도는 아닌듯 하다.

2) 平柱 : 正面 : $(0.36+0.33) \div 2 =$

0.3765%

背面 : $(0.529+0.543) \div 2 = 0.536\%$

左側面 : $(0.823+0.875) \div 2 = 0.819\%$

右側面 : $(0.674+0.672) \div 2 = 0.673\%$

후림율이 가장 큰 左側面과 가장 작은 正面과는 2배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側面柱가 훌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